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일원이라서 행복해요

문화향기

이미경

전 광주시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협의회장



‘햇덩이 같이만 살아라, 환하게 환하게, 달덩이 같이만 살아라, 둥글게 둥글게...’ ‘가시버시 사랑가’가 JS웨딩컨벤션장에 울려 퍼진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한 제39회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 현장에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출소자 8쌍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동행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2020년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해온 필자는 신부측 엄마역할을 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신랑신부의 부모로 결혼식장에 서게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의미 있는 결혼식에 신부측 엄마로 화촉을 밝히고 혼주석에 앉아 있는 내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이재준 공단지부장님으로부터 신부엄마역할에 대한 제의를 받고 한복을 준비하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앞뒤 안 가리는 동생 성원이 ‘이지에우리웃’ 대표님께 행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장 멋진 한복을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지예 대표님은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의미로 귀한 한복을 세탁비만 받고 대여 해주었다. 품위 있는 신부엄마를

위해 메이크업원장님께도 간곡히 부탁하여 마음을 내어주게 해 주었다. 요즘은 신부엄마도 맛사지도 하고 준비한다며 시간 될 때 마다 샵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면서 성원이 더 행복해 하였다. 드디어 결혼식이 열리는 날. 아침 일찍 한복을 찾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특별한 인연으로 결혼식에 엄마역할을 하게 되면서 신랑신부 한쌍 한쌍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다. 웨딩홀에 들어서자 8쌍의 부부들이 한 것 들든 모습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화장을 고치면서 사진도 찍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워하고 있었다. 조금은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분들을 보면서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신랑 신부들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왔다. 난생 처음 해보는 화촉점화를 하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였다. 8명의 신랑, 8명의 신부가 세상의 편견 없이 한 없이 행복하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 자리에 서보니 울엄마도 생각나고 나를 엄마 삼아준 아이들도 생각이 났다.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는 날을 상상해 보면서 괜스리 미소가 지어지고 진심을 다해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기부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금반지 예물도 교환하고 다양한 전자제품에 축의금까지 준비된 결혼식은 이 세상 어떤 예식보다 의미 있고 경건하며 축제 그 자체였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다짐의 편지를 읽어

내리는 신랑의 목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였다. 신부의 두 눈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보면서, 흘뭉이 아닌 신부의 힘들지만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어떤이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오늘의 이 시간을 만들어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부로서 함께 건강한 가정을 지켜달라는 최정학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의 주례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빛이 났다. 1985년을 시작으로 39회에 308쌍이 사랑의 결실을 맺기 까지 매회 3,000여만 원의 경비를 광주광역시, 광주지검 등 여러 기관의 후원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각 위원회에서 후원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은 살아갈 만 한 것 같다. 그렇게 귀한 일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다음엔 꼭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 속에 작은점이나마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6월의 신랑신부가 된 그분들이 힘찬 발걸음을 할 때 보내준 따뜻한 박수를 기억할 것이다. ‘어허가시버시 사랑 사랑이라다. 두둥실가시버시 사랑 사랑이라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한 사랑 둘이 둘이 꽃길을 여는 눈부신 사랑’

社說

‘돈봉투’ 체포동의 부결, 국민이 부끄럽다

‘구태 정치’ 감싼 후폭풍 거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를 던지면서 ‘부패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되고 있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온정주의에 갇혀 구태 정치를 감싼 민주당의 행보가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3일 “불체포 특권 포기과 당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새의 입이 됐다”며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지탑을 쌓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선전선동 내로남불에 이어 방탄도 민주당의 주특기”라며 “차라리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거둬들인 방탄에 대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보좌관 출신 강래구 씨 등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수사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들 주장대로 수사가 부당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는데 굳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주당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재창당 각오’로 쇄신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정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리 없다. 민주당의 구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국민이 부끄럽다.

방치 신호등 음향신호기 이대로 둘텐가

시각장애인 공포 속 횡단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걷는데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떨까. 아마도 최단시간에 관련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지역 신호등 100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에는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가 374개소·보행자 작동신호기는 11개소 설치돼 있다. 그러나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100여 개는 매년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지 못한 신호기들은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다. 더 큰 문제는 광주 시에서 매년 초 음향신호기 설치·보수를 진행하고 난 뒤 고장이 발생할 때다. 분기별 유지 보수가 없는 탓에 길게는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횡단보도가 길거나 복잡할 때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이동 대기 시설물인 보행섬도 문제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 것인지 보행섬인지 알 수가 없다. 자칫 방향을 잘못 틀었다간 그대로 도로 한 가운데로 가게 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인근에 거주하는 3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했지만 주변 상가와 입주민들의 항의로 작동이 중지됐다.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자신만 생각하는 낮은 인권감수성이 안타깝다.

장애인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동의 자유’다. 그들이 이동하는데 공포와 불안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다. 교통약자 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어린이 등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신호가 바뀌면 자동으로 음향이 나와 누구든지 신호 변화를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가족들도 그간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도가 나가자마자 ‘꼭 나왔으면 했던 내용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겠는가. 이들의 감사를 들으며 부끄러워 지는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고민해 보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성에서 ‘롱 테이블’(Long Table)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다. 이날 프라하성 내 비투스 대성당에서 테이블을 약 400m 길이의 하트모양으로 연결해 프라하 주민과 방문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갖고 참여,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프라하=신화/뉴시스

서석대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겁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56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지구에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1960년부터 시작한 아폴로 계획의 성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낭보였다.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인간의 꿈과 용기를 보여줬다는 의미도 크다. “지금이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주비행사들에게 처음 한 말이다.

1971년 2월 5일 오전 9시 30분.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임무를 마친 뒤 6번 아이언을 꺼내 들었다. 운석을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집게에 헤드를 연결한 것이었다. 두꺼운 우주복 때문에 한 손으로 이뤄진 그의 스윙은 짧았다. “TV에서 모두 봤을 텐데, 첫 번째 스윙은 아쉽게 맞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스윙에서는 공이 수백m를 날아갔고, 3번째 스윙은 거의 400m 날아갔다. 6번 아이언으로는 관참은 습씨였다.” 아폴로 14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지상관계소가 중계한 현지 기자회견에서 셰퍼드가 한 말이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NASA가 주도한 아폴로 계획은 과학 실험 임무가 중심이었다. 250억 달러를 들인 이 계획을 통해 미국은 로켓과 궤도 계산, 우주 통신, 도킹 등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385kg의 월석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고, 달에 설치한 지진계를 통해 달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유사하다는 점도 알아냈다. 달과 지구의 거리, 달의 궤도를 정확히 알아낸 것도 성과다. 셰퍼드의 골프 스윙도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달의 중력이 골프공에 미치는 마찰력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된 실험이었다.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6300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7월께 나온다고 한다. 예타를 통과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1년 탐사용 로버를 실은 1.8톤급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게 된다. 앞서 미국은 자원개발과 더 먼 우주로 떠나기 위한 ‘로켓 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내놓고 준비에 들어갔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2019년 달에 매장된 자원을 언급하며 ‘달이 곧 돈’이라고 했다. 탐험의 우주시대를 지나 찾아온 ‘돈을 위한 우주시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용환=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